

실전모의고사 현대시 6 김영랑, <독을 차고>

◆ 본문 분석

• 주제 : 일제 강점하의 현실에 저항하는 대결 의지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독한 마음,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대결 의지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해롭게 한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 버리라 한다.

현실 순응적 인물, 나에게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 싸우다가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충고하는 존재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벗의 충고에 대한 나의 대답

▶ 1연 : 독을 차고 살아가려는 나의 태도

[이해 UP]

Q. 이 시에서 '독(毒)'의 의미는?

A. 독은 죽음과 맞닿아 있는 이미지로서 내면의 순결과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화자의 극단적인 의지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 허무주의적 세계관과의 대결 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 않아 너 나 마주 가 버리면

너와 내가 모두 죽고 나버리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시간 속에 모든 것이 허무하게 소멸해 간다는 세상의 이치를 말함

'허무(虛無)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 2연 : 독한 마음을 버리라는 벗의 충고

벗이 이렇듯 허무한 세상에서 독한 의지를 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충고함.

벗은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그러나(시상의 전환)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이 허무함을 인정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나를 방해하는 무리들(일제) 순결하고 정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를 방해하는 무리들(일제) 자신에 대한 일제의 어떤 공격도 받아들이겠다는 결의

▶ 3연 : 불의한 자들과 대결하려는 강한 의지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망설이지 않고 거침없이

막을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인생을 마감하는 날 죽은 이후에도 허무하게 되지 않고 무언가를 남기기 위하여

(죽는 날) (내가 부정한 현실에 맞서 싸우면 나의 순결한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 4연 : 독을 차고 살아가려는 강한 의지

실전모의고사 현대소설2

박완서, <나목>

◆ 본문 분석

· 주제 : 전쟁을 경험한 한 여인의 고독과 진정한 예술가와의 만남을 통한 정신적 성숙

[앞부분의 줄거리] 6·25 전쟁 중 두 아들을 잃고 망연자실한 어머니와 살고 있
두 아들의 죽음을 본 후 삶의 의욕을 상실함

는 ‘나’(이경)는 미군 매점(PX)의 초상화 가게에서 일한다. 두 오빠의 죽음이 자
주인공 미군들로부터 초상화 주문을 받아내는 일을 함. 주문받은 초상화는 옥희도가 그림.

신 때문이라는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나’는 어느 날 가게에 일하러 온 화가

옥희도에게서 자신과 같은 황량한 모습을 느끼고 끌리기 시작한다. 이후 명동
화가 박수근을 모델로 한 인물.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진정한 이경이 옥희도를 좋아하게 됨.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예술가.

성당과 완구점 앞에서 만남을 이어 가던 중 옥희도가 가게에 나오지 않자, 그의

집으로 찾아간다.

[이해 UP]

Q. 제목 ‘나목’의 의미는?

A. 나목은 잎이 다 떨어져 가지만 남았지만 생명을 가진 나무로, 이 작품에서는 현실의 고통을 인내하며 봄을 기다리는, 희망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가) 식구가 몽땅 한 방에 모여 있었다.

무릎에 막내아들을 앉히고 신문을 보고 있는 옥희도 씨는 무척 수척해 보였다. 내가
이경은 유부남인 옥희도를 좋아했음. 나중에 이경이 사랑을 고

백하지만 옥희도는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고백을 거절함

들어가니 큰 아이들은 조금씩 윗목으로 물러가고 막내만이 자랑스럽게 아버지의 무

릎을 점령한 채,

“사과 안 사왔어?”

“이런 뻔뻔한 녀석 좀 봐.”

옥희도 씨가 그놈의 궁둥이를 들썩거리려 한 번 치니 온 식구가 다 웃었다. 화기에 애

한 저녁 한때였다. 나도 조금 웃으며 방 안을 휘둘러보았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흔적은 아무 데도 없었다.

투박한 찻잔에 생강차가 나왔다. 노르께한 액체가 따끈하고 알맞추 맵싸고 알맞추

단것이 추위에 맞춤이었다.

“그림은 다 그리셨어요?”

제일 궁금하던 것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 있어요? 좀 봐도 될까요?”

무릎에 앉았던 막내가 별떡 일어나더니 윗방으로 난 장지를 열었다. 나는 그제야 오늘 부인이 애들을 윗방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를 알았다. 전등이 없는지, 있는데도 안 켜는지 윗방은 어둑한데 80호 정도의 캔버스가 벽에 기대어 놓여 있고 넓지 않은 방바닥은 온통 빈틈없이 어지러져 있었다. 테레빈유의 냄새가 확 끼쳤다.

소나무에서 얻은 기름. 그림 그릴 때 사용함.

나는 캔버스 위에서 하나의 나무를 보았다. 섬뜩한 느낌이었다.

그림에 있는 나무를 고목(말라죽은 나무)으로 인식함

거의 무채색의 불투명한 부연 화면에 꽃도 잎도 열매도 없는 참담한 모습의 고목 그림을 바라보던 당시의 이경의 절망적 상황이 그림 속의 나무를 고목으로 보게 함. 그리고 옥희도의 내면세계도 이처럼 황량할 것이라고 생각함.

(枯木)이 서 있었다. 그 뿐이었다.

화면 전체가 흑백의 농담으로 마치 모자이크처럼 오тол도톨한 질감을 주는 게 이채 질음과 열음

로울 뿐 하늘도 땅도 없는 부연 혼돈 속에 고목이 괴물처럼 부유하고 있었다.

내가 집착하는 옥희도의 내면

한발(旱魃)에 고사한 나무 - 그렇다면 잔인한 태양의 광선이라도 있어야 할 게 아 심한 가뭄 밝고 현란한 색채의 그림을 좋아하는 나의 감상안이 드러남.

닌가? 태양이 없는 한발 -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짙은 안개 속의 한발…… 무채색

의 오тол도톨한 화면이 마치 짙은 안개 같았다.

부연 혼돈과 일맥상통하는 이미지

왜 그런 잔인한 한발이 고사시킨 고목을 나는 그의 캔버스에서 보았을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꼬마는 잭싸게 장지문을 닫아 버렸다. 향긋한 생각차가

식어 가는데 나는 마실 구미를 잃었다.

▶ 옥희도의 그림에서 고독과 황량함의 이미지를 느끼는 '나'

[이해 UP] 종략 줄거리

이경은 어머니의 임종을 맞게 되고 옥희도와도 헤어진다. 얼마 후 이경은 자신에게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소망(아내와 사과처럼 불이 붉은 사내아이를 낳아 단란하게 살려는 꿈을 가진 평범한 소망)을 품고 있는 미군 PX 전기공 태수와 결혼한다. 어느날 이경과 태수는 신문에서 고(故)옥희도 유작전이 열린다는 기사를 읽게 되고 태수와 함께 유작전에 가게 된다.

(나) S 회관 화랑은 삼 층이었다. 숨차게 계단을 오르자마자 화랑 입구였고 나는 미처 화랑을 들어서기도 전에 입구를 통해 한 그루의 커다란 나목(裸木)을 보았다.

과거에 자신이 강한 인상을 받았던 그림을 발견하고 주의를 집중하게 됨
과거에 고목으로 보았던 그림 속의 나무
나는 좌우에 걸린 그림들을 제쳐 놓고 빨려들 듯이 곧장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나무 옆을 두 여인이,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은 서성대고 짐을 인 한 여인은 총총히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枯木),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 6,25전쟁으로 인해 모두가 불우했던 시절로, 앞날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나목이 아닌 고목으로 보았던 것임.
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裸木)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지금은 앞날에 대한 희망, 즉, '봄에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목으로 보인 것임. 나목은 잎이 다 떨어져 가지만 남았지만 생명을 가진 나무이다.
김장철 소소리 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막 마지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목이기에 초겨울의 나목. '소소리'는 으스스하고 쓸쓸하게라는 뜻.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엔 봄에의 향기가 애달프도록 절실하다.
그림이 지닌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이에 공감하게 됨. 수심은 나무줄기의 가운데 단단한 부분을 의미함.

그러나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枝]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서 있는 나목, 그 옆을 지나는 축디추운 김장철의 여인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에의 믿음이 있다. 봄에의 시련과 고난 봄을 기다리는 희망 → 고목과 다른 점이다..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毅然)하게 함이 바로 봄에의 믿음이라라.
고목은 말라죽어서 희망이 없다.

▶ 옥희도의 그림 속 나무가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음을 깨달음.

나는 홀연히 옥희도 씨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안다. 그가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 옥희도는 힘든 시절을 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PX에서 미군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생계를
진정한 예술가의 길을 걸었음을 깨닫는 나 했던 힘든 시절

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6.25 전쟁으로 인한 상흔 옥희도는 봄을 기다리며 의연하게 서 있는 나무
있다. 처럼 가난 때문에 예술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즉 희망을 가지고 견디며 버텼.

나는 또한 내가 그 나목 곁을 잠깐 스쳐 간 여인이었을 뿐임을, 부질없이 피곤한 심 지난날 지산의 미성숙함을 깨닫게 된 나 → 나는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의 괴로움을 알아주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옥희도를 좋아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됨.
신을 달랠 녹음을 기대하며 그 옆을 서성댄 철없는 여인이었을 뿐임을 깨닫는다.

‘나무와 여인’. 그 그림은 벌써 한 외국인의 소장으로 돼 있었다.

▶ 그림을 보면서 옥희도를 생각함.

나는 S 회관을 나와 잠깐 망연했다. 오랜 여행 끝에 낯선 역에 내린 듯한 피곤인지 나목을 통해 내가 오랫동안 자신의 절망과 방향에 중지부를 찍고
절망인지 모를 망연함, 그런 망연함에서 남편이 나를 구했다.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의지를 깨닫는 대목